창간정신
● 영생대도의 실천
● 영생학의 보급
● 영생문화의 창달

승리신문

자유율법
주님을 초초로 바라보고 고도로 사모하라. 나라는 존재의식을 초초로 죽이고 짓이겨라. 형제의 죄를 내 죄로 여겨라. 인류는 한 몸 누구든지 내몸처럼 여겨라.

1985년 1월 18일 창간 隔週刊 제 807호 | The Seungni Shinmun | 2020년 5월 15일 금요일

성경은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가

성경을 해석한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임에 틀림이 없다. 기독교 역사 2000년 동안 서로 다른 교리를 주장하여 수많은 교파로 갈린 것을 보아(국내 장로교만 해도 200개 이상의 교파라는 점) 여실히 증명된다. 왜 하나님의 말씀이 일관성이 없고, 수많은 설로 쪼개어지는 것일까? 그리하여 서로가 상대를 이단시하여 비방하고 피비린내 나는 싸움까지 벌이는 것일까? 중세시대의 종교전쟁을 상기하는 일은 어렵지 않을 것이다. 시쳇말로 그동안 인학(人學)은 있었어도 신학(神學)은 없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하자면 신이 무엇인지도 모르면서 인간들이 이렇다 저렇다 마치 장님이 코끼리를 만지듯이 신을 논해 왔던 것이다.

선악과를 사과나 배 같은 과일로 해석하는 것은 하나님의 입장과 사정을 전혀 모르기 때문이다

성경 해석의 기준: 짝이 맞아야 하고, 하나님 입장에서 해석되어야 한다

성경 속에는 성경의 말씀들을 해석하는 기준이 명확히 제시되어 있다.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의 입을 빌어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다. "여호와의 책을 자세히 읽어보아라. … 하나도 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이는 여호와의 입이 이를 명하셨고 그의 신이 이것들을 모으셨음이라(이사야 34:16)" 여기서 '짝이 있다'는 말은 이치가 맞는다는 뜻이므로, 짝이 맞아야 여호와의 말씀이고, 이치가 맞아야 하나님의 말씀이지, 짝이 맞지 않고 이치에 어긋나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는 것이니,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면 마귀의 말이다. 또한 성경을 해석함에는 하나님의 입장에서 해석을 하여야 한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며, 하나님께서 마귀에게 한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에 대한 말씀이므로, 하나님의 입장에서 해석을 해야지 또는 죄인(사람)의 입장에서 해석을 해서는 올바른 해석을 할 수가 없다. 무릇 책을 읽음에 있어서는 저자의 입장에서 읽어야만 그 책을 올바로 이해할 수 있는 것과 같이 성경도 이와 마찬가지로 저자인 하나님의 입장에서 읽어야만 한다.

선악과에 대하여 예를 들어 설명해 보자. 과연 선악과가 기성교회 목사들의 말처럼 사과나 배와 같은 세상의 과일이라고 한다면, 올바른 설명이 될 수 있을까? 다시 말하자면 선악과는 하나님께서 에덴동산에 심어 놓은 사과나 배와 같은 과일인데, 아담과 해와는 먹지 말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따먹음으로 해서 에덴동산에서 쫓겨나 원래의 영생의 존재에서 결국은 죽을 운명의 존재로 화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이를 다시 설명하면 아담과 해와는 선악과를 먹기 전에는 영생의 존재였는데, 선악과를 먹고 나서 죽음의 존재로 되었다는 것이다. 따라서 선악과는 먹으면 죽는 독약과 같은 것이라고 볼 수 있는데, 따 먹으면 죽을 독약과 같은 선악과는 과연 세상의 과일과 같은 것으로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일까?

이러한 의문에 답을 찾기 위해서는 앞서 설명한 성경을 해석하는 기준에 의거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짝이 맞는지 여부를 검토해 보아야 한다. 첫째, 하나님께서 선악과, 즉 먹으면 죽게 되는 과일을 만들었다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 얼토당토 않는 말이다. 하나님은 영생의 신인데, 영생의 신인 하나님께서 죽음의 나무(선악과)를 만들었다는 것은 감나무에 사과가 열릴 수 없는 것처럼 말도 되지 않는 말이다. 감나무에 감이 열리고, 열매를 보아 나무를 알 수 있듯이 인과의 법칙이 세상의 이치인데 〈영생〉에서 〈죽음〉이 나왔다는 해석은 몰라도 너무 모르는 무식한 자들의 말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 따라서 선악과는 하나님과는 상관이 없는 전혀 이질적인 존재라고 해석하여야 한다(선악과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추후에 하겠다).

둘째,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한다. 또한 전지전능한 하나님이라고 한다. 전지전능하다는 것은 아담과 해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죽을 것을 내다보고 알고 있다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다. 아담과 해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죽을 것을 미리 알고 있는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치워 버리지 않고 그냥 놔두고 있었다면 사랑의 하나님이 아니라 무자비한 하나님이다. 자기 자식이 천진난만하게 노는 방 가운데 독약(선악과)을 놓아둘 부모는 이 세상 천지에 없다. 진실로 자식을 사랑하는 부모라면 손이 닿지 않는 높은 선반 위에나 보이지 않는 곳에다 치워 놓을 것이다. 하물며 하나님께서야 두말할 나위가 없이 없애 버렸을 것이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선악과를 치우지 않은 것인가, 아니면 치우지 못한 것인가? 전자의 경우라면 무자비한 하나님이 되는 것이요, 후자의 경우라면 전지전능하지 못한 하나님이 되는 것이다.

이와 같이 이치를 따져 짝을 맞추면 분명히 선악과는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전혀 이질적인 존재라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선악과는 어떠한 존재로 보아야 하는가?

성경말씀은 영적 말씀이다

성경 말씀은 영적인 말씀이라고 한다. 영적인 말씀이라는 뜻은 마음적 말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선악과는 세상의 과일이 아니라 영적인 과일을 말하는 것이고, 영적인 과일은 영이므로 선악과는 영인데, 선악과를 먹고 나서 사람이 죽었으므로 선악과는 사람을 죽게 하는 영을 말하는 것이다. 따라서 선악과는 사람을 죽이는 영이고, 사람을 죽이는 것은 마귀이므로 선악과가 바로 마귀인 것이다.

선악과가 마귀라는 사실을 어느 누구가 설명해 본 적이 있는가? 지금까지 성경을 연구한다는 학자들이나 소위 신령스럽다고 하는 목사들도 선악과가 바로 마귀라는 사실은 알 수가 없었다. 그것은 구세주가 마귀의 완전한 비밀을 캐내어 밝혀놓게 되는 마지막 때까지 인봉될 수밖에 없었다. 마귀의 비밀은 구세주라야만 밝혀낼 수 있기 때문이다. 놀랍게도 선악과는 하나님께서도 어찌할 수 없었던 원수 마귀였던 것이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성경을 해석하는 기준에 따라 읽게 되면 선악과는 과일이 아니라는 점, 흙으로 사람을 창조할 수 없다는 점, 예수의 성령잉태설의 허구 등 성경 해석상의 모든 난제들을 술술 풀 수 있다. 성경 말씀은 하나님의 신을 모신 이긴자 구세주가 나와야 해석이 되는 것이지 마귀의 권세 아래 있는 죄인은 해석할 수 없는 것이다. 이긴자 구세주가 아니면 성경을 관통하여 명쾌하게 해설할 수 없는 것이다.*

□□□□□ □□□?

예수를 몰랐던 세종대왕, 이순신장군은 지옥에 갔을까?

기독교인들은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요 전지전능한 하나님이라고 말하면서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전쟁과 재난에 대해서는 앞뒤가 맞지 않는 해석을 한다. "하나님이 선하다면 왜 재난과 전쟁 무고한 사람들의 죽음을 방치하는가?"라는 물음에 "재난은 인간의 탐욕에 대한 경고일 수도, 다른 의미가 있을 수도 있다."고 답하는데 이 또한 모순된 답변이다. 선한 하나님이 인간의 탐욕에 대한 경고라는 이름으로 당신의 자식을 무참하게 죽인다면 악한 하나님은 될지언정 선한 하나님은 될 수 없을 것이다. 전지전능하시고 선하신 하나님이라면 결코 이렇게 하실 수 없다. 사람을 죽이는 것은 악마(마귀)가 하는 짓이다. 하나님은 죽이는 능력, 심지어 벌을 내리는 능력이 없다고 해야 하나님의 선하심과 이치가 맞는다.

또한 "기독교 신앙이 전파되기 전에 살았던 사람들은 다 지옥에 가나?"라는 물음에도 "세종대왕, 이순신장군, 착한 심청이는 어떻게 됐을까? 우리는 알지 못한다. 신이 섭리하시는 방식이 있을 것이라고 여길 뿐이다."라고 애매모호하게 답한다.

이 또한 너무 무책임한 답변이다. 지옥에 갔다, 안 갔다 명확하게 밝혀야지 알지 못한다면서 신의 섭리 운운하는 것은 뭔가 궁색한 변명밖에는 안 된다.

이러한 궁색하고 이치에 맞지 않는 답변은 하나님이 어떤 존재인지 모르기 때문에 나오는 것이다. 하나님은 악이라고는 눈곱 만큼도 없는 선 그 자체이며, 인류의 조상으로서 인류를 지극히 사랑하는 존재인 것이다.*

금주의 말씀 요절

전 세계를 향하여 선포한다 〈183〉

"천당이 죄인에게는 지옥"

그날에는 하나님이 된 의인들은 빛으로 화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죄를 벗고 성령으로 거듭나 하나님이 된 의인은 빛으로 화하게 되지만, 죄를 벗지 못한 사람은 지금의 형상을 그대로 유지하게 되어 있습니다.

의인들이 하나님이 될 때에 땅을 치고 통곡하는 사람들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영원무궁토록 고통 속에 사는 거예요. 빛으로 화한 의인의 몸에서 발산하는 빛이 너무너무 뜨거운고로 견딜 수가 없는 것입니다.

천당이 죄인에게는 지옥인 것입니다. 그날에는 사망의 신이 다 멸하여 없어진 고로 의인의 몸에서 발산되는 빛으로 말미암아 죽고 싶어도 죽지 못하고 영원무궁토록 뜨거워서 펄펄 뛰게 되는 것입니다.*

행복한 노년 준비

오장의 작용과 기능의 이해(신장)

평균수명이 한 해가 다르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경제적인 여유가 있고 건강하다면 그것이 더할 바 없이 축복된 삶이 되겠지만, 아프고 누워서 수발받고 오래 지낸다면 그것처럼 비참한 삶도 없을 것입니다. 물어볼 것도 없이 누구나 전자의 삶을 원하고 바랄 것입니다. 그렇다고 아무나 그런 복받은 삶을 살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알아야 면장(免葬)하듯, 복 받은 생도 알아야만 가능합니다. 타고난 것을 무시할 수 없지만, 그보다 더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는 것은 노력입니다. 노력하기에 앞서 내가 내 몸을 모르는데 어떻게 건강하게 장수할 수 있겠습니까? 성공도 건강도 반드시 방법을 알아야만 할 것입니다. 건강과 장수로 들어가는 방법, 오장(五臟)의 작용과 기능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신장(腎臟)은 정(精)을 간직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생명을 유지하는 데 가장 기본이 되는 물질을 정(精)이라고 합니다. 정(精)은 생명 에너지의 근원으로 이것을 신(腎)에서 저장하고 있기 때문에 신(腎)은 생명 활동의 근원적인 에너지원(源)을 공급하는 기관이 됩니다. 신장(콩팥)은 모양이 콩이나 팥같이 생겼다고 해서 콩팥이라고 하는데요, 성인의 주먹만한 게 양쪽 척추와 맨 끝 갈비뼈 사이에 붙어있습니다. '신장이라고 하면 오줌을 만드는 곳' 이렇게 많이들 인식하실텐데요, 그것뿐만 아니라 혈압과 빈혈을 조절하고, 칼슘의 인의 배출을 조절하고, 비타민D를 활성화시켜서 뼈의 건강까지 관장합니다.

머리카락이 가늘어지고 자꾸 빠진다, 피부가 건조하고 푸석푸석해진다, 고혈압이 생겼다, 심장질환이 생겨서 병원에 갔더니 '관상동맥질환'입니다, 라고 얘기한다든지, 팔다리로 가는 혈관이 가늘어지고 약해져서 걷는데 힘들어서 걷지 못하게 된다든지, 빈혈이 생겨서 어지럽고 기운이 없다든지, 아주 많은 증상들이 생깁니다. 그래서 혈액 내에서 문제가 생기면 신장이 위험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결국, 신장은 우리 몸에 중요한 혈압, 뼈 건강, 근육 건강을 다 관장해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모든 건강의 으뜸이 신장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둘째, 명문(明門)과 신수(身水)를 주관합니다. 명문(明門)은 '생명의 문'이란 뜻, 신수(身水)는 '몸의 물'이란 뜻입니다.

셋째, 골(骨), 수(髓), 뇌(腦)와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신이 간직하고 있는 정(精)은 골수를 생겨나게 하고 골수가 튼튼하면 뼈가 튼튼해집니다. 수(髓)는 골수, 뇌수, 척수 등을 이루는 근본 물질이며, 정(精)에서 생겨납니다.

넷째, 수분(水分) 대사를 주관하는 주요 장기로서 폐, 비와 함께 몸 안의 체액 대사를 조절합니다.

다섯째, 귀, 생식기, 요도, 머리카락, 허리와 관계가 있습니다.

노인이 되면 대개 청력이 떨어지고 머리카락이 빠지고 소변의 횟수가 증가하면서 시원하게 잘 나오지 않게 됩니다. 이는 모두 신(腎)의 기(氣)가 허(虛)해지면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신(腎)은 생식기와도 관련이 많습니다. 우리는 '정력'이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 신(腎)은 정(精)을 간직하며 정(精)이 얼마나 든든한가에 따라 생식 능력, 즉 정력의 강약이 좌우됩니다. 정력(精力)이 약해지면 허리가 시큰거리고 다리 힘이 빠지고 소변이 자주 나오는 증세들이 동반하게 됩니다. 요즘은 몸의 정을 너무 쉽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보니, 특히 나이 들어 고생하는 어르신이 참 많아 안타깝습니다.*

김주호 기자

"하나님께서 나를 이기셨나이다"

하나님께서 한 인간을 점령하는 과정을 담은 책

하나님은 당신을 점령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당신은 마음을 열기만 하면 됩니다

이 책을 읽기 원하는 분들은 주소를 적어서 아래의 번호로 문자 또는 이메일 주시면 무료로 배송해드립니다.
도서출판 해인 담당자 010-3019-1440, bookman5@naver.com

본부제단 4월 성적 1등 5지역

개인 1등 고선희 권사

5지역 강춘희 부지회장이 상을 받고 있다

본부제단(윤봉수 신도회장)은 5월5일 구역장회의를 주최하고 4월 성적을 발표 후 시상하였다.

*지역 1등: 5지역(지역장: 박철수, 지회장: 신순이)
2등: 3지역(지역장: 김갑용, 지회장: 정은경)
3등: 1지역(지역장: 정수윤, 지회장: 박경옥)

*구역 1등: 21구역(구역장: 안명숙)
2등: 42구역(구역장: 고선희)
3등: 46구역(구역장: 박철수)

*개인 1등: 고선희 권사
2등: 정수윤 승사
3등: 박철수 승사*